

“‘민심은 천심’... 주민들께 큰 절 올린 마음 깊이 새길 것”

▲당선을 축하합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임실·순창 시·군민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결코 저민의 승리가 아니라, 위대한 민심의 승리이자 지역발전과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시·군민의 승리입니다. 우리 지역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려는 현명한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큰절 올린 그 마음 깊이 새기고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던 공약 이행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공공의대 설립, 옥정호 수변도로 개통, 강천산 도로 확장,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지역 교통망 확충 등 지역발전 사업에 집중해서 실타래를 풀듯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하기 위해 의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원의료원을 국립으로 승격시키고, 의료연구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공공의대, 처음 제안한 제가 확실하게 매듭지겠습니다.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의 경우 제가 2018년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남원친환경보전법' 내용에 맞게 임실군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 약 10km의 수변도로 개통시킬 것입니다. 임실군과 긴밀히 협의해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순창 강천산 도로 역시 올해 초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에 1차 반영시키면서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국정공약 제1호가 '민생살리기'였습니다. 농민수당 현실화, 카드수수료 인하 등 민생을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하겠습니다. '抑強扶弱(억강부약), 강자(强者)를 누르고 약자(弱者)를 돕는다.' 이 말이야말로 제가 추구하는 정치입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엄격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관대한 나라, 어려운 사람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미력이나마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역구 최대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공공의대법 통과와 공공의대 개교입니다. 공공의대는 저에게 지적소유권이 있다고 할 정도로 서남대 폐교 이후 제가 최초로 제안하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2년 연속 2019년에 3억원, 2020년 9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거센 반대, 의사협회의 반대와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로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지만, 공공의대법 통과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전달받았고, 최근 여야 신임 지도부를 만나 설득하는 등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공공의대법 올해 안 처리 위해 의정 집중·옥정호 수변도로 등 지역 현안도 집중 농민수당 현실화 등 민생에 충실·공공의대 설립에 맞춰 보건복지위 활동하고파

그 밖에 옥정호 수변도로 개통과 강천산 도로를 포함한 지역교통망 개선,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등의 숙원사업 해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활동하고 싶은 상임위가 있다면?

지역구 최대현안이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인 만큼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가겠습니다. 관련 법안을 비롯해 공공의대 설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에 힘쓰고, 사업을 보다 탄력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북발전을 위해 어떤 부분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도내 인구 감소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여러 사업 추진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북 정치권이 더욱 크게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위한 일에 초당적으로 공조해왔고, 21대 국회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만나 소통하고 협력하면, 지역발전과 국정운영에 커다란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역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를 선택해주신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약속을 지키고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더 뛰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지역발전과 현 정부 성공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시·군민께서 보란 듯이 자랑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용호 당선인 공약 사항

▲남원 '청년 관광객 시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국악 상설공연장 건립, 역사문화도시 복원(교통산성 사적지 국가 지정 및 복원, 구 남원역 부지 남원성 복원, 민인의총 유적 종합정비, 가야 유적 발굴 및 복원, 역사연구소 설립, 남원문화원 원사 건립), 전주~남원~여수 전라선 KTX 관광 프로그램 개발, 남원시 '남원관광지 Re-PLUS 사업(2020~2024)' 지원 및 연계사업 창출, 국립공공의대 2022년 개교, 국립치유농업원 유치, 남원의료원 국립 승격 및 산후조리원 신설, 사대산업단지 우수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요천생태공원 조성, 환경개선사업 추진, 노암대학교 신설로 금동과 노암동 연결,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지원센터 설립, 청소년 자치 문화공간 확보

▲옥정호, 치초 브랜드키워 임실을 명품관광지로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섬진강 에코파크&수상레포츠터 조성, 임실치초테마파크 키즈랜드 건립, 오수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가안전교육원 조성, 관촌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 오수고등학교 기숙사 신설, 공공스포츠클럽 유치, 청용~임실 국지도·2차로 개량, 신덕~신평 국지도·2차로 개량, 성수~진안(백운) 국도·2차로 개량

▲순창을 한국 대표 휴양과 힐링의 관광도시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 스마트팜 교육원 설립, 건강장수산업과 휴양·힐링을 접목한 복합단지 조성,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강천산도로 확장(4차로), 순창을 악취 문제 해결,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추진, 공공임대주택 건립, 섬진강 침수 우려 지역 개선, 순창의 숨은 보물, 향가 유원지 개발 추진, 쌍치~금성 국지도, 2차로 확장

▲사통팔달 임순남 교통망

동부내륙권(정읍~임실 덕치~순창 동계~남원 주천)2차로 개량, 새만금~지리산 고속도로 김제 죽산~남원 대산 구간 건설 적극 추진

▲민생 살리기

코로나19 사태처럼 국가 재난으로 인한 소비 위축시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자금 지원, 20년 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연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세금 부담 경감, 카드수수료 부담 반값, 창업 후 폐업하더라도 채무부담 완화·재창업 교육 등을 통해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창업생태계 혁신,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 구매 제도 활성화

▲농자천하지대본

농민수당 현실화 및 법제화, '농업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 및 예산 확대, 태풍 등 자연재해

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 재해보험 보상 수준 현실화

▲청년 일자리 & 중소기업 육성·지원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5% 이상으로 확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업 및 예산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적 제도화, 지역협동조합 및 업종별 협동조합 육성·지원, 지역기업인중재(인센티브) 마련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농어촌·산간지역 의료원 내 산후조리원 신설, 손자·손녀 돌봄 조부모 양육수당 지급

▲미래세대 위해 환경 지키기

미세플라스틱 억제 5년 단위 국가계획 수립, 미세먼지 대책으로 한·중·일 공동 협약 추진, 저탄소 기술·신재생에너지 R&D 확대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